

- **주요 뉴스**: 연준 주요 인사, 7월 75bp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. 시장의 100bp 인상 우려 완화
 - 바이든 대통령,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및 사우디의 추가 증산 기대
 -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,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으로 내년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
 - 중국 2/4분기 GDP, 전년동기비 0.4%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최저
- **국제금융시장**: 연준 7월 100bp 금리인상 우려 완화,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주목
주가 상승[+1.9%], 달러화 약세[-0.5%], 금리 하락[-4bp]
 - **주가**: 미국 S&P500지수는 연준 금리인상 우려 완화 속 지표 호조에 영향
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6월 소매판매 호조로 1.8% 상승
 - **환율**: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7월 100bp 금리인상 우려 진정 발언으로 하락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6%, 0.3% 상승
 - **금리**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보합
 독일도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4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18.89원, -6.76원) 0.5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7/15일	7/14일	전일대비			7/15일	7/1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63.2	3,790.4	1.92%	국채 금리 10y	미국	2.92%	2.96%	-4bp
	유럽	413.78	406.50	1.79%		독일	1.13%	1.18%	-4bp
	중국	3,228.1	3,281.7	-1.64%	CDS 5y	한국	51bp	52bp	-1bp
	일본	26,788	26,643	0.54%		중국	87bp	85bp	2bp
	한국	2,331.0	2,322.3	0.37%	위험 지표	EMBI+	498	499	-2bp
환율	달러지수	107.98	108.54	-0.52%		VIX	24.23	26.40	-8.22%
	유로화	1.0080	1.0018	0.62%		WTI유	97.59	95.78	1.89%
	엔화	138.57	138.96	0.28%	원자재	구리	323.5	321.1	0.75%
	위안화	6.7572	6.7561	-0.02%		금	1,708.2	1,709.9	-0.10%
	원화	1,326.1	1,312.1	-1.06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주요 인사, 7월 75bp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. 시장의 100bp 인상 우려 완화

-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7월에 금리를 100bp 인상하고 이후 회의에서 인상 폭을 줄이는 것과, 7월 75bp 인상 이후 큰 폭의 금리인상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아주 큰 차이가 없다고 발언. 다만 연말까지 정책금리가 3.75~4%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
-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건조한 고용시장과 여타 경제의 긍정적 추세들이 악화될 위험을 우려해 연준이 지나치게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발언. 연준 내 큰 폭의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그룹이 있으나 자신은 그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
- 6월 CPI 발표 후 100bp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던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두 연준 인사들의 발언 후 7월 75bp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. 선물시장에 반영된 7월 예상 금리인상폭은 전일 82.5bp에서 79.7bp로 축소
- 한편 15일 발표된 6월 소매판매,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등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의 risk-off 진정에 영향. 전월 -0.3%를 기록했던 소매판매는 1.0%로 반등했으며,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역대 최저치(50.0)에서 51.1로 반등하면서 경기 우려가 완화
- 또한 7월 미시간대 12개월 및 향후 5년 기대인플레이션 모두 전월대비 하락하고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으며, 특히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1년래 최저 수준인 2.8%를 기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바이든 대통령,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및 사우디의 추가 증산 기대

-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유가 상황과 원유 증산을 논의했으며 회담 후 사우디가 유가 진정을 위해 수 주 내 원유를 증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. 다만 미 정부 관계자들은 금번 중동 순방에서 원유 증산에 대한 즉각적인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전언

■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,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으로 내년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

-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나섬에 따라 내년 인플레이션 진정을 예상하면서, 기대인플레이션 통제 전까지 금리인상 지속 필요성을 강조.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아닌 경기침체 위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

■ EU집행위원회, 러시아 금 수입 금지 등 대러 추가 제재안 발표

- EU집행위는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대러 제재 발표하고 현재 EU 제재안을 '23.1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을 제안 금번 제재안은 기존 제재를 유지 및 조정하기 위함이며, 글로벌 식량 위기를 감안해 러시아 곡물 및 식량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는 수정할 방침

■ 올리 렌 ECB 정책위원, 7월 및 9월 금리인상 시사 및 이탈리아 경제 어려움 예상

- 올리 렌 ECB 정책위원이자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7월과 9월 각각 25bp, 50bp 금리인상 시사. ECB가 에너지 위기, 물가, 리세션 위험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도 고려하고 있다면서, 드라기 총리 사임 표명으로 이탈리아가 더 큰 에너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발언

■ 중국 2/4분기 GDP, 전년동기비 0.4%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최저

- 중국 2/4분기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최저 수준인 0.4%에 그치며 예상치(1.2%) 크게 하회. 같은 날 발표된 6월 소매판매 등은 개선 조짐을 보였으나 여전히 시장은 정부의 5.5% 경제성장 목표 도달 가능성을 낮게 평가. 일각에서는 4%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 제기

■ 중국인민은행, 1년물 MLF금리 동결 및 1천억위안 유동성 공급

- 중국인민은행은 1년물 MLF(중기유동성지원창구) 금리를 6개월 연속 2.85%로 동결하고 MLF를 통해 1천억위안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발표. MLF 금리 동결 결정에 따라, 오는 20일 발표될 대출우대금리(LPR)도 동결될 것이라 관측 확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7/15일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6월 소매판매(전월비): 1.0%, 5월(-0.3%), 예상치(0.9%)
-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: 51.1, 6월(50.0), 예상치(50.0)
- 미국 7월 미시건대 12개월 기대인플레이션: 5.2%, 6월(5.3%), 예상치(5.3%)
- 미국 7월 미시건대 향후 5년 기대인플레이션: 2.8%, 6월(3.1%), 예상치(3.0%)
- 중국 2/4분기 GDP(전년동기비): 0.4%, 1/4분기(4.8%), 예상치(1.2%)
- 중국 6월 소매판매(전년동기비): 3.1%, 5월(-6.7%), 예상치(0.3%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29, E-mail skkim@kcif.or.kr